# 이달의 主要 뉴-스와 齒協의 周辺

## 징크 시멘트 및 매몰재 금수조치해제
## 76년도 하반기 의약품등 수출입 요령고시

齒科醫療界가 지난 1년반동안 禁輸措置해제를 갈망해오던 「징크 시멘트」와 「매몰재」가 드디어 禁輸品目에서 풀렸다. 75년 1월 保社部의 75년도 醫藥品 등 輸出入要領에 의거 禁輸品目으로 묶이므로 그동안 齒科診療에 큰 지장을 초래해왔던 이들 品目은 齒協의 끈질긴 禁輸解除건의와 正當性있는 주장이 받아드려져 禁輸해제의 실현을 보게된 것이다.

保社部는 지난 6월23일자로 76년도 下半期 醫藥品 등 輸出入要領을 개정, 告示 제16호로 공고했다.

保社部는 이 告示에서 「징크 시멘트」(인산아연계 시멘트) 매몰제(저온 매몰제 중 퀼즈계 매몰제) 「메롯트 메탈」「인레이왁스」「파라핀왁스」 등 종래 5개 수입제한품목에서 「징크 시멘트」와 매몰제를 해제조치 했으며 齒科用유닐 5천불이상만 輸入할수 있게 했던것을 齒科用治療셋트 7천불이상으로 완화조치했다.

또한 診療費인하를 위해 輸出入「링크」대상품목을 조정, 醫療用具수입에서 輸出實績弗사용을 해제했다.

이들 齒科材料 5개品目은 지난 75년 1월 國産品장려시책에 따라 當局이 輸入을 제한함으로써 齒協은 이들 품목중 齒科診療에 필수材料인 징크시멘트 인레이왁스 매몰제 등 3개品目의 禁輸를 해제키 위해 FD1에 분석의뢰, 그 결과 不合格品으로 판정받으므로 齒科診療에 차질을 우려 FD1분석결과를 첨부 數次에걸쳐 保社部에 해제를 건의했던것으로 齒協신임집행부는 總會受任사항인 이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첫과제로 내걸고 총력을 기우린 끝에 그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그러나 國內生産品의 質이 向上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금수조치를 취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保社部는 이번 醫藥品 등 輸出入요령 개정에서 수출진흥 수입억제 原料醫藥品工業육성 촉진에 기본방침을 두고 ① 國産대체된 原料醫藥品을 수입금지하고 ② 不急한 완제의약품의 수입을 규제했으며 ③ 수출입 「링크」대상품목을 조정하고 ④ 수출입업무를 간소화했다.

## 會費 全額納付 및 身上申告 96%
## 忠南齒醫會에서 제일 먼저 69만 6천원

忠南齒醫會(會長 金英鎬)는 지난 21일 지난 5월 한달간 실시한 76년도 會員身上申告에서 78명중 75명이신고 96.15%의 申告率을 보였다고 齒協에 보고해왔다.

忠南齒醫會는 이와 아울러 전국 13개 市道支部중 제일먼저 납기인 6월 15일을 엄수 고령및 소득이 없는 3명의 회원을 제외한 일반회원 72명 봉직회원 1명 등 73명의 76년도 齒協會費 69만 6천원을 납부해왔다. 그런데 同忠南道齒醫會는 每年 協會에 對한 모든 協力事項에 對하여 頂上을 달리고 있는 斷然 模範支部인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한편 서울齒醫會에서도 24일까지 회원 9백 5명중 8백 70명의 신고서를 제출, 90.5%의 신고율을 보였는데 이에따라 서울齒醫會는 4차에 걸쳐 會費 2백 90만원을 납부해왔으며 齒科醫學界의 刮目할 만한 團結과 發展的 側面을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協會會務執行에 對한 展望은 밝아질것으로 보고 있다.

## 10億基金 10만원 寄託會員 第1號 誕生
## 釜山市 中區 東光洞에 金盛洙會員이

釜山에서 開業을 하고 있는 金盛洙회원(김성수치과·부산중구 동광동 4가 1)은 앞서 齒協總회에서 결의된 10억基金募金에 자진참여 24일 齒科界서 제1호로 10억基金으로 10만원을 齒協에 기탁해왔다.

약 5년전부터 釜山서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金회원은(서울齒大 58년도 졸업) 釜山齒科상사와 九德技工所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 基金의 희사하면서 齒科界총화와 발전에 원동력이 돼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齒科界 일부에서는 10억基金모금에 적극 호응 측면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앞서 總會석상에서 卞鍾秀 齒協대의원총회의장도 성금을 내겠다고 공표했으며 齒協 任員陣도 일정액을 거출키로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齒協은 현재 財務委員會에서 10억基金모금에 따른 상당한 구체적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品貴 齒科材料 共同購入 方案模索
## 서울齒醫會共濟會, 實態調査後 需給對策 세우기로

서울市齒科醫師會 공제회는 지난 28일 무교동소재 K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일부 齒科材料등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 각종 齒材를 공제회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市齒科醫師會 池憲澤會長을 비롯 공제위원장 姜영규씨 및 各區 자재이사들이 전원 참석했는데 회의서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同위원회가 齒科재료중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을 선정, 공동으로 많은량을 짧은 시일내에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염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제1차 사업으로 「제이젠」「FC」를 서울齒大약리학교실 丁東均교수가 개발한 시공품을 각구 회원들에게 우선 알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내치과 재료생산업체들이 國民의 口腔保健管理라는 측면에서의 公益的事業임을 망각, 이익이 많은 품목만을 생산공급하고 있어 이윤이 적을것으로 보이는 상당수의 齒材가 市中에서 걸핏하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 1차로 業界에 각성을 촉구한 후 관계당국에 그 시정을 요망하기로 했다.

한편 同공제회는 오는 7월 중순까지 市中에 유통되는 각종 齒材의 유통현황을 조사, 품귀현상품목을 소모량별로 「랙크」,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줄것을 當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제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姜영규 ▲부위원장=李鍾玉 ▲기획위원=李德根 ▲재정위원=金淵滿 ▲업무위원=李炳五

## 國家的次元서 救急囊 備置勸奬

病醫院(齒科病醫院 포함) 에서는 별도의 「비상구급낭」을 구입 비치하지말고 통상 진료용 장비와 기기 및 의약품등을 유사시에 손쉽게 취합, 응급환자치료에 대처토록 했던 보사부는 齒科病醫院의 경우 통상 진료용 장비만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 구급낭 비치에 따른 새로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9일 보사부의정당국자에 따르면 齒科를 포함한 病醫院에서는 비상구급낭을 별도로 구입 비치않아도 되도록 했으나 齒科의 경우 통상 비치돼있는 것이 口腔疾患치료용뿐이기 때문에 유사시 응급환자 처치에는 사실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감안, 齒科病醫院은 별도로 구급낭을 비치토록하되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할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 당국자는 이어 비상구급낭을 각 기관 혹은 국장등에 비치하자는 것은 국가비상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齒科病醫院도 별도 구입하는데 따른 부담만을 의식할것이 아니라 國家觀的 차원에서 비상구급낭을 구입·비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혔다.

## 口腔疾患 實態調査 結果 發表
## 口腔保健協會, 97%가 治療 안 받아

韓國口腔保健協會는 지난72년부터 全國 2만 5천 6백명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에 대한 실태를 조사 그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민의 구강保健실태를 전국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인데 이 사업은 보사부가 대한구강保健協會에 위임 실시된 것으로서 구강질환의 지역별·연령별·性別 발생원인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렸을때 충치를 경험한 사람은 총 조사대상자 2만 6천 5백명 가운데 68.06「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영구치의 충치를 경험한자는 93.35「퍼센트」였고 7세의 아동은 평균 2.8개 이상의 충치를 경험한 유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치를 앓은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치료를 받은것은 2.55「퍼센트」에 불과했고 나머지 97.4「퍼센트」가 아무런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3.18개의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아를 가지고 있으며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아중 치료된 영구치아는 불과 22.13「퍼센트」였고 38.6「퍼센트」는 충치로 인해 뽑은것이었으며 39.2「퍼센트」로 충치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치수조직지수는 0.83「퍼센트」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를 둘러쌓고 있는 잇몸에 염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口腔위생상태가 좋은 사람은 7.37「퍼센트」 불량한 사람은 30.97「퍼센트」였고 치아에 치석이 침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25.93「퍼센트」치석이 경도로 침착되어있는 사람이 51.52「퍼센트」, 중등도로 침착되어 있는 사람이 14.2「퍼센트」, 많은 치석이 침착되어 있는 사람이 9.41「퍼센트」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19세이하의 우리나라 아동의 10.07「퍼센트」는 언챙이나 입천정이 파열된 상태 혹은 심하게 뻐드러 진상태이거나 주걱턱·덧이와 같은 악안면이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장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구강보건협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분석검토한 끝에 ① 國民구강보건管理策은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 ② 齒科衛生士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것 ③ 齒科의사에 대한보수교육 과정에 예방치과학교육과 공중구강보건학 교육을 강화 치과의료전달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 ④ 장기적인 충치예방으로 음료수의 불소화와 불소자가 도포사업을 전개할 것 ⑤ 한국구강보건전문교육의 방향이 바꾸어져야 할것 등을 당국에 건의했다.

## 교과과정 연구책자 발간, 서울대 치대 교과과정 위원회서

서울대치대 교과과정 위원회(위원장 김명국 부교수)에서는 「敎科課程硏究」第一卷(創刊號)를 발간했다. 菊版 90면에 이르는 이책자는 치과대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과 동위원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치의학교육의 목적…김명국, 김종배 ② 치의예과 교과과정의 검토…김명국 ③ 한국치학교육과 지역사회의 구강보건…김종배 ④ 의학과 치의학교육…김일순 ⑤ 의학교육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신동훈 ⑥ 현 한국의과 대학교육의 문제점…고광욱 ⑦ 최근시도된 교과과정 개편의 결과…김용일 이외에·대학원 석사박사학위 과정표·1973년도 개편 교과과정표 ·각 과목의 학점 및 시간배분표 ·1975년도 개편교과과정표 ·교과과정위원회 회의록 ◆명예위원장 선우양국 ·위원장 김명국…위원 안형규, 김종원, 김영해, 정동균, 임창윤, 김종원, 이종훈, 김영수, 김종배

## 서울대 치대 실험 실습기재 도입 영국정부차관 40만불 중 1차로 4만불어치

서울대 치과대학은 지난 9일 영국정부차관으로 치과용 연구기재 40만불중 1차로 4만불어치를 도입했으며 2차분도 부산에 입항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명국 교무담당 학장보가 사전에 도영, 협의를 마친바 있으며 이 기재는 다음과 같다.

**영국정부 차관 도입 실험실습기재**

제 1 차분

D 5.49 I Hydraulic Press
D 1.46 I Automatic Combined liquid Scintillation
D 4.42 2 PH/MV Meter
D 5.30 1 Constant infusion Pump
D 4.8 Stimulator
D 4.6 Ultrasonic Cleaning bath

제 2 차분 (부산도착)

1) D 1.6 Spectrofluorimeter
2) D 3.5a micro Hardness tester
3) D 4.31a Refrigerated freeze Dryer
4) D 2.4(D4.10) Oscilloscope
5) D 1.1s 8800A Ultramicrotome
6) D 1.1t 7800B Knife meker
7) D 3.3 Balance
8) D 2.2a Photoplan Microscope
9) D 2.3 Photoplan Microscope
10) D 2.4 High Sensitivity Photometer

## 朴大統領 국산機械類展示會 참관 新興齒科産業 優秀業體로 選定

지난 5월 26일 금년도 제 5 차 輸出振興확대회의와 겸들여 중앙청광장에서 개최된 國産重工業機械類전시회가 열린바있다.

現代自動車등 2백개업체의제품이 출품된 이 전시회서는 國産化를 추진, 外貨획득에 큰 공을 세운 57개 업체가 優秀업체로 선정되었는데 醫療器工業界에선 新興齒科산업(대표 李영규)이 유일하게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날 朴正熙대통령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마치고 전시된 기계류를 둘러보았다.

30일까지 일반공개된 이 전시회에 新興齒科産業은 「레지나슈퍼 디럭스 유니트」와 「스카이매틱 10체어」를 출품했다.

## 保社部 醫政2課長職代리에 趙泳弼博士 승진 發令

保社部는 지난 7월 1일자로 醫政局 醫政 2課長 직무대리에 趙泳弼博士 (醫政 2課 齒務담당)를 발령했다. 그런데 趙課長은 서울大齒大 13回卒業生으로서 慶熙大 齒大 口腔外科科長(副敎授)을 歷任한바 있으며 現在는 梨花女子大 醫大 齒科및 延大齒大 外來敎授로 學生敎授에도 一役을 擔當하고 있다.

保社部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代辯人 직무대리 韓壽生 ▲사회국 사회과장 申壎混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印敦錫 ▲모자보건관리관실 가족계획담당보좌관 職代 宋順燮

## 제28회 齒協綜合學術 대회 日字確定
## 10월 16일 서울大齒大서 개최하기로

제28회 대한齒科醫師協會 綜合學術대회가 오는 10월 16일 서울齒大 강당에서 개최된다.

齒協은 7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學術대회일정을 결정하고 이번 學術대회에선 「Iatrogenic Diseases (醫原性疾患)」에 대한 임상전반에 걸친 심포지움을 비롯 齒科醫療事故와 齒科기초의학에 대한 特講, 테이블 크리닉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齒協 學術위원회는 종합학술대회 準備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이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연제와 연사등을 확정키로 하는 한편 종합학술대회를 전후로 각分科學會학술대회를 갖도록 유도키로 했다.

## 會員身上신고 92·4%로 好調
## 忠北, 濟州는 100%의 申告로 으뜸

9일 현재 齒協에 보고된 76년도 회원신상신고 결과에 의하면 총신고대상자 2천 7백34명중 국내거주(海外·군진 무소속제외) 1천 8백92명중 1천 7백 49명이 신고를 완료 92·4%의 신고율을 나타냈는데 충북 제주가 100%신고율을 보였으며 전북이 60.5%로 제일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진(3백 73명) 무소속(2백 73명)회원 신고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 해외거주(1백 96명)까지 집계를 끝내면 금년도 회원신상신고는 거의 100%의 높은신고율을 보일것으로 보인다.

齒協에 집계된 회원신상신고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 9백 5명중 8백 70명 90.5% ▲부산 1백59명중 1백58명 99.3% ▲경기 92명중 80명 86.9% ▲강원 30명중 29명 96.9% ▲충남 79명중 76명 96.2% ▲충북 27명 1백% ▲전북 38명중 23명 60.5% ▲전남 55명중 43명 78.1% ▲경북 1백53명중 1백50명 98.0% ▲경남 64명중 54명 84.3% ▲제주 12명 1백% ▲공직 2백78명중 2백37명 85.2%.

## 76년도 會員名簿제작 착수
## 會원신상 申告不履行者는 제외

齒協은 76년도 會員名簿를 8월중에 인쇄배부키로하고 이의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齒協은 금년도 會員名簿제작에 있어 76년도 회원신상신고서 資料를 기초로 편집제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신상신고를 이행치 않은 회원에 대해선 會員義務不履行으로 간주, 강경조치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會員신상신고 불이행會員에 대해선 同名簿에 기재치 않을 방침이다.

그런도 9일 현재 각지부를 통해 회원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은 군진·무소속 해외를 제외한 12개지부에서 1천 7백 49명이다.

## 齒醫學學位 신설
## 서울大 規定 개정

서울大學校는 學位授與規程을 개정 博士學位에서 齒醫學등 5개學位를 신설 16개로 늘렸다.

이번개정된 서울大의 學位수여규정에 의하면 學士學位수여는 졸업논문제를 원칙으로 齒醫學등은 종합시험을 실시토록 했으며 碩士과정에 外國語시험을 실시케했다.

그런데 금번 후기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다.

▲齒醫學博士=毛慶集, 李基植, 朴仁子 ▲齒醫學碩士=金榮九, 明魯哲, 李起澤, 黃榮武

## 새마을 齒科診療院 8월중 開院
## 국민속에 奉仕하는 醫療人像 부각

정부의 醫療均霑化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구강보건사상계몽과 국민속에 봉사하는 齒科醫療人像을 부각시키기위해 새마을齒科診療센터를 설치키로한 齒協은 7일 이사회에서 이에따른 사업계획을 검토 명칭을 「새마을齒科診療院」으로하고 늦어도 8월중에 開院, 영세민등에 齒科診療를 베풀기로 했다.

齒協은 새마을 齒科診療院사업계획에서 시설비 8백 73만여원 운영비 1백 68만원등 총규모 1천 61만 8천 1백원의 豫算을 책정하고 유닛체어 4대 에어터빈 2대 엑스레이 캐비넷 콤푸레샤 각 1대와 치료기구등 시설을 갖추고 45평의 진료실을 8월초까지 회관안에 마련 8월중 새마을 齒科診療院을 開院하고 ①새마을 사업취로자 ②생활보호대상자 ③영세민등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발치등 간단한치료 구강위생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齒協은 同診療院 齒科 診療를 위

해 매일 齒科醫師 2명을 동원하는 한편 齒科衛生士 1명, 간호보조원 1명을 상주시킬계획이며 이의 운영에 따른 구체적 계획은 차후 운영세칙에서 마련키로 하고 開院을 서둘기로 했다.

**保社部 齒科衛生士奬學제도 마련**

保社部는 口腔保健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을위해 齒科衛生士 奬學金 제도를 마련 80년도부터 齒科衛生士를 대량배출 구강보건예방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保社部는 口腔保健사업계획으로 구강보건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치과의사와 齒科衛生士를 확보하고 오는 78년까지 3년간 불소도포사업을 벌여 그 결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음료수弗素化까지 실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월간 치협회지 등록사항 변경 등록

협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동학술위원장이 경질됨에 따라 협회회지 발행자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한바 있는데 76. 7. 8일자로 문화공보부에 의하여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7월 30일 일자로 발행되는 7월호부터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김규식 명의로 발행케되었다.

## 새마을 치과 진료용 기재 기증

신흥, 대성, 대일치재 및 미군병원공급(주)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새마을 진료원을 8월중으로 개설함에 있어 이에 따라 機材의 寄贈을 바라고 있는바 이미 신흥치과산업(주)(사장 이영규)에서 유닛트 1대 및 체어 2대, 대성치재(주)(사장 박종윤)에서 유닛체어 각 1대 및 X-Ray 유닛1대, 대일치과상사(사장 박도순)에서 대형캐비넷 1대, 미군병원 공급(주)에서 유닛체어 각 1대를 기증 받기로 되어 있어 동 무료진료원의 장비는 치협에 있던 유닛체어 각 1대를 합하여 유닛트 4대, 체어 5대, X-Ray 1대, 캐비넷 1대이며 에어타빈 및 콤푸렛샤의 기증은 아직 미정으로 있으며 협회에는 개원하기전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치과의료용 자재 및 의약품 소요량파악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건사회부의 요청에 의하여 치과의료용 자재 및 의약품 1개월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수입에 대한 조절등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파악함으로써 이제까지 주먹구구식 자재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모든 것을 명확히 파악하여 모든 자제공급에 차질을 없에는 한편 품귀현상이나 폭리를 막기위해 절대 필요하며 회원들은 이점을 명심하여 정확한 소요량을 신속히 각지부를 통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 保社部 1천 94개 무의지역에 의사배치

보사부는 오는 77년도엔 농어촌 1천 68개 의료지역과 26개 無醫낙도군에 모두 의사를 충원 배치키로 한 의료시혜 확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요구했다.

현재 전국 읍·면 농어촌에 설치돼 있는 보건지소는 1천 3백 36개소이다.

보사부는 보건지소의 의사보수로 6억 4천 80만원과 기말 수당 2억 2천 1백 40만원을 계상시켰으며 무의 낙도배치 의사 보수로 2천 3백 40만원 등 모두 8억 8천 5백6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 강원도 치의회 총회 보수교육도 실시

강원도 치과의사회(회장 송현중)는 지난6월25일 속초시 중앙동 라이온스회관에서 총회를 겸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의 연자는 김용관씨(연세치대학장)와 양원식씨(서치대 교정과 조교수)로서 「국소마취 및 구강외과」「임상의를 위한 교정증례의 진단분석 및 교정장치제작」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 소아치과학회 좌담회 「항생제 이용법」등 강연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 양정강)는 지난 6월 21일 연대치대 제 6 강의실에서 학술집담회를 가졌다. 연자는 정동균교수(서치대)와 손홍규선생(연세치대)으로서 「소아치과영역에서의 항생제 이용법」과 소아에서의 전치치료법」에 대해서 각각 강연했다.

## 口腔保健學會 학술집담회개최

구강보건학회(회장 · 朴光振)는 7월 1일 앰버서더호텔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학술집담신엔 金周煥씨의

〈구강보건계몽의 전망〉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교정학회 집담회 「언어치료」 특강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金光鉉)는 지난 6월 18일 교정학회 집담회를 가졌다.

성모병원 2층 세미나룸에서 있었던 이번 집담회의 연자는 표진이교수(가톨릭의대 언어교정치료실)로서 「언어치료」에 대해 강연했다.

### 치주과학회 「치주임상」연수회 개최

대한치주과학회(회장·白承浩)는 지난 7월 9일~11일 제1회 「치주임상」연수회를 개최했다. 서치대 2층 세미나실 및 치주과 치료실에서 치협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의와 임상실습을 겸해 실시됐는데 일정표는—

◇ 7월 9일 :

▲ 손성희(서치대조교수)— Preventive Periodontology (Plaque control, tooth brush instruction, charting, etc).

▲ 백승호(연세치대부교수)—Etiology of Periodontal Disease.

▲ 최상묵(서치대조교수)— Diagnosis, Treatment Plan, Prognosis.

◇ 7월 10일 :

▲ 이만섭(경희대조교수)—Technique of Scaling and Curettage.

◇ 7월 11일 ;

▲ 최상묵교수—Gingivectomy

▲ 백승호교수—Flap Operation

▲ 손성희교수—Mucogingival Surgery.

◇ 임상실습 :

① Clinical Practice of Curettage and Sugical Dressing.

② Clinical Practice of Gingivectomy and Flap Operation.

### 구강생물학회 집담회 최근배씨 연제발표

대한구강생물학회(회장·金永昌)는 지난 6월 25일 서치대 2층 세미나실에서 제6회 학술집담회를 가졌다. 연제는 「Artificial Cells」에 관한 것으로 최근배씨(해군분회)가 맡아 강연했다.

### 보존학회 집담회 임성삼교수 특강

대한치과 보존학회(회장 민병순)는 지난 6월 23일 서치대 2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집담회를 개최했다. 연자는 서울치대 임성삼조교수로서 「Apexification」에 대해 강연했다.

### 技工所開設權 固守에 最善 齒技協 市道會長회의서 결의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齒協이 현재추진중인 의료기사법령의 개정작업은 전국 1천여 치과기공사의 고유권한은 물론 생존권까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협회의 모든 기능을 동원, 치과기공소의 개설권을 박탈하려는 이같은 개정작업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했다.

大齒技協은 지난 19일 협회사무실에서 전국시도회장 이사연석회의를 열고 현행치과기공소개설규정은 운영상 묘안을 찾아 점차개선해 갈 수 있고 치협이 내세우고 있는 기공계의 부조리도 기공사협회자체에서 강력히 조사, 정화중이라고 전제 시행1년반만에 이를 고친다는것은 당초 의료기사법령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금년들어 처음열린 시도회장, 이사연석회의에서는 또 기공소의 설치규정을 의료기사법에 삽입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벌이며 치과기공소의 TO제해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치과기공소 이의의 치과의원등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업무한계를 제도화하여 치과기공사로써 부당한 일신상의 침해를 방지하며 응당한 신분보장책을 세우기로 했다.

### 無資格者채용 禁止지시 江原道당국 齒科醫院에

江原道보건당국은 道內齒科醫院등 의료기관에 무자격의료기사를 채용하지 말도록 19개 시군보건소를 통해 강력히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江原道당국의 이같은 강력한 지시는 최근 강원도내 의료기사연합회(치과기공, 임상병리, 방사선사회) 회장단이 道당국을 방문, 의료기사중 상당수가 미취업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심지어는 의료기사를 무자격자로 대체, 채용하는 의료기관도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엔 의료기사의 실직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이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해줄것을 건의하므로써 내려진 조치로 알려졌다.